

국립묘지 문헌 한국 최초의 화학자

李泰圭 (1902~1992년)

최근 글을 읽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자 이태규(李泰圭 1902~1992년)의 무덤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국립묘지에 문헌 과학 기술자는 과연 누구 누구일까? 아마 별로 많지는 않을 성싶다. 원래 지금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는 1955년 군묘지로 시작되었지만, 1965년 '국립묘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묘역이 추가되었으니, 이태규는 바로 여기 포함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은 대전에도 국립묘지가 추가로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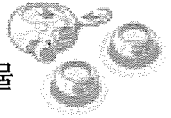
1931년 일본 경도대학서 이학박사

1931년 일본의 경도(京叡)대학에서 이학박사를 받은 그는 화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된다. 화학이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혁명적 발달을 시작한 것은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친다면 우리의 근대 화학은 서양 보다 1백30년 뒤에 시작되었다고 할까? 이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적어도 50년은 뒤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기는 이태규를 첫 화학자로 꼽는다고 해도 실제 이 땅에서 화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가 학위를 받은 1931년으로 잡기가 어렵다. 이태규의 일생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학위를 받고 바로 귀국하여 이 나라의 화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모교 경도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후학을 가르쳤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당시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화학 발달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결국 한국 최초의 화학자 이태규는 해방 뒤에서야 그의 화학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활동마저 곧 중단하고 그는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그가 영구 귀국한 것은 1973년의 일이었다. 그 사이 그는 미국 유타대학 교수로서 많은 한국 과학자를 불러들여 가르쳐 한국 화학의 기초를 다듬어 주는데 기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태규는 우리 과학사에 분명한 자취를 남긴 화학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나눠보자면 대략 공부하던 초기(1902~1945년)와 미국에서의 학자 생활시기(1947~1973년), 그리고 귀국 후의 교수 시절(1973~1992년)로 나눌 수가 있다.

이태규는 1902년 충청남도 예산(禮山)읍 예산리에서 출생했다. 형과 함께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는데 「천자문」을 단번에 외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그의 고향 예산의 인물을 소개한 어느 인터넷 사이트는 소개하고 있다. 또 그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한문을 배워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오륜(五倫)의 내용을 간추린 책)을 익혔다고 회고하고 있기도 하다. 신학문을 해야한다는 아버지의 독려로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자 이태규(李泰圭 / 1902~1992년)박사는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 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예산보통학교·경성고보를 거쳐 일본으로 유학,
 31년 경도대학에서 한국인 최초의 이학박사가 되고
 해방 후 귀국하여 서울대 학장을 지내면서 후배들을 모아 조선화학회를 창립했던 그는
 귀국 3년만에 미국으로 떠나 그 곳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한다.
 그 후 73년 과학원 교수로 다시 귀국하여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치고서...

그는 8살에 소학교에 들어갔다. 정식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라 어른 학생 틈에 겨우 '청강생'이 되었다. 여하간 1915년에는 예산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고등보통학교(현재의 경기고등학교)에 무시험으로 입학할만큼 뛰어난 수재였다. 그는 보통학교 시절에 산과 알칼리의 중화반응 실험을 통해 과학의 놀라운 세계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훗날 회고한 바 있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도 독립만세를 외치며 다니기도 했지만, 이듬해 학교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그런 일 없었다고 거짓말하여 1920년 무사히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곧 그에게는 행운이 찾아왔다. 공부 잘한 학생이라 하여 관비로 일본 유학이 추천되었기 때문이다. 유학은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광도사범(廣島高等師範學校)이었다. 1924년 이 학교를 마친 그는 곧 경도대학(京都大學)에 진학하여 졸업했고, 화학을 공부하여 1931년 한국인 최초의 이학박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 1936년쯤 경도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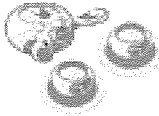
당시 서울에서는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일본에 유학한 이태규는 무진 애를 먹었다고 뒷날 회고하고 있다. 그는 수학 시간에 나오는 영자만 몇 가지 익혔을 뿐이어서 A, B, C에서 시작하여 몇 글자와 X, Y, Z는 배웠지만, J부터는 아예 글자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에 가자마자 소위 원서란 것으

로 공부를 해야했기 때문에 영어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배운 영어를 가지고 그는 경도대학 교수로서 미국 유학을 떠났다.

73년까지 美 유타대학서 연구생활

1938년 12월 도미한 그에게는 재일교포 사업가와 고국의 유지,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도움을 주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에 방문교수(visiting scientist)로 가서 2년7개월만인 1941년 7월 일본에 돌아왔다. 일본대사관 직원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 귀국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었다. 프린스턴에서는 헨리 아이링교수와 각별했던 듯한데, 뒤에 아이링교수가 유타대학으로 옮겼을 때 그를 따라 유타대로 갈 수 있었고, 그와 함께 논문도 발표하게 된다. 아이링은 양자화학에 선구적인 이론도 발표한 학자로 그의 영향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그 곳 고등연구소에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있었다. 그는 자주 파이프를 물고 교정을 산보하는데 이태규와 만나 수인사를 나누곤 했다.

이렇게 보면 이태규의 일생은 한국 과학과는 그리 깊은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해방후 3년 동안, 미국에서 귀국한 1973년 이후, 그리고 미국 유타대학 교수로 일한 25년 동안 한국 화학과 깊은 관련을 맺었던 셈이다. 우선 해방 직후 3년 동안 그가 서울에서 한 일을 살펴 보자. 일제는 그가 일본에서 교수로 있는 동안



창시개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 덕택에 그는 이름을 지킨 채 1945년 12월 귀국했다. 바로 서울대 이공학부장, 그리고 이어 학장을 하면서 그는 서울대에 후배들을 데려왔다. 대판제국대학 출신으로 그의 조교를 했던 김순경(金舜敬), '아주 머리가 좋은 동북제대 출신으로 월북한' 김용호(金勇虎), 그리고 최상업, 김태봉, 이종진, 최규원, 김내수... 등이다.

당연히 이들을 모아 1946년 6월 조선화학회를 구성하고, 7월에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태규는 초대와 2대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 일에 얽힐 줄 모르던 화학자 이태규에게는 당시 국대안(國立大學案)을 둘러싼 갈등 폭력의 난무, 특히 그 배경을 이룬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다. 역시 화학공학자로 경도제대 화공과를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3년 아래 이승기(李升基 1905~1996년)와는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승기는 뒤에 월북하여 북쪽의 가장 주목받는 과학기술자로 성공했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1948년 9월 미국으로 떠났다. 마침 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링교수가 유타대학 대학원장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대학의 연구교수로 갈 수 있었다. 원래는 2년 계획이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주저앉게 되었고 1년 동안은 가족과 통신도 두절될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공부를 계속했다. 당시 가족의 외국 이주란 불가능했는데, 그의 영어 선생이었던 변영태(卞榮泰 1892~1969년)가 외무장관을 거쳐 1953년 국무총리가 되었던 덕택에 6년만에 가족과 재회하게 되었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평생 연구한 분야는 4가지라고 그는 말한다. 송상용교수와 대담한 기록을 보면, rheology, 액체이론, 촉매흡착, chemical kinetics 등으로 되어 있고, 김동일박사와 1986년 9월 31일 '일요방담' 프로에서는 액체이론, 반응속도론, 촉매이론, 점성이론을 들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점성이론에 대해서는 도표까지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

해 주었는데, 요컨대 "물은 잘 흐르고(뉴턴 액체) 기름은 끈적끈적하며 잘 흐르지 않는데(비뉴턴 액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전공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유타대학에서 그가 가르친 제자로는 양강(梁岡), 한상준, 장세현, 김완규, 김각중, 전무식, 백운기 등을 들고 있다. 그는 귀국하여 과학원 교수로 있을 때에도 기회만 있으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에민한 관찰과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고, 이를 영어로 keen observation and everlasting effort라고 표현했다.

시인 정지용 권유로 가톨릭 입문

대학 졸업후 일본 동지사대학 출신으로 휘문고 교사였던 시인 정지용(鄭芝溶 1903~?)의 권유로 그는 정식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사실은 그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선생을 하던 박인근과 1932년 전북 익산의 나바우성당에서 결혼했는데, 이 중매자도 바로 정지용이었다. 뒤에 김동일박사와의 대담에서 그는 과학자로서 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양자적 도약(quantum jump)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과학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는 같은 차원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73년 과학원 교수로 귀국하기 이전 그는 1964년 대한화학회 초청으로 귀국하여 16회 강연을 한 일도 있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인 제자 기르는데에만 전력했을 뿐 고국에서 직접 활동한 일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영구 귀국한 노년의 그에게는 그 후 학술원 회원, 학술원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울시 문화상, 세종문화상 등이 주어졌고, 1992년 10월 26일 세상을 떠나자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제2묘역에 안장되었다. 한국 최초의 화학자로서 알맞는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7

朴 星 來 <한국의국어대 시학과 교수/파학사>